

제5회 연구자복지법 토론회

- 일시 : 2023년 2월 27일(월) 16시
- 진행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
- 온라인 : ZOOM (bit.ly/제5회연구자복지법토론회)



오프라인 : R커먼즈합정(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7안길 18, 씨티빌딩2층)

주제

'연구하는 삶'을 위한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고민과 분투: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 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

김지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토론

이승원(연구자의집)

주최 :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제5회 연구자복지법 토론회

- 일시 : 2023년 2월 27일(월) 16시
- 진행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
- 온라인 : ZOOM (bit.ly/제5회연구자복지법토론회)



오프라인 : R커먼즈합정(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7안길 18, 씨티빌딩2층)

주제

'연구하는 삶'을 위한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고민과 분투: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 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

김지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토론

이승원(연구자의집)

주최 :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목 차

'연구하는 삶'을 위한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고민과 분투: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 실태에 관한 연구>

1. 발표 : 김지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1

2. 토론 : 이승원(연구자의집)21

'연구하는 삶'을 위한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고민과 분투: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 실태에 관한 연구>

김정인(준천교대), 김지수(연세대), 김화연(중앙대), 천주희(문화사회연구소)

목차

1. 연구개요
2. 여성 연구자 관련 연구현황 및 정책환경
3. 연구참여자들의 특징과 배경
4.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활동과 노동경험
5.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 연구자의 삶
6. 결론 및 정책 제언

연구 개요 : 배경 및 목적

“그 많은 여성 대학원생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가”

- 학위를 마친 인문사회 분야 여성연구자들이 학계 내부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
- 대학 구조조정, 연구자 일자리 감소, 비수도권 대학 통폐합
- 경력단절, 연구자원 접근성 부족, 돌봄과 성역할, 전문직 여성 관련 편견

→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들이 연구를 지속하고
생애전망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면밀한 탐색 필요

연구 개요 : 배경 및 목적

연구목적

- 국내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들이 겪는 연구자로서의 삶과 이행경로 탐색
- 신진연구자들이 학술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지식 노동'의 형태 주목
-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복합적인 위치성 가시화, 제도적 연구안건망의 필요성 제시

연구대상의 선정

- '신진연구자'의 정의 확장
대학원생과 박사학위 소지자를 모두 포함
-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취득 5년 이내
- 연구 대상의 중층적인 위치성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 / '신진연구자' / '여성'

연구 개요 : 연구내용 및 방법

문헌연구

- 기존 여성연구자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조사 자료 한계
- 여성연구자 관련 국내/해외의 법률, 정책/제도 현황

학술활동과 노동경험

- (재학기간 중) 대학원 생활과 경제활동
- (재학기간 중) 학술활동과 네트워크
- (학위취득 이후) 취업준비와 일 경험

키워드

- 여성연구자와 '출산 및 육아' 이슈
- 여성연구자의 '롤 모델'
- 여성연구자와 '인맥'
- 여성연구자와 불안정 지식노동 재생산

연구 개요 : 연구내용 및 방법

문헌조사

- 여성연구자 실태조사 관련 선행 문헌/통계자료
- 국내외 시행 중인 여성연구자 대상 법률/정책/지원제도



조점 집단인터뷰 심층인터뷰

- 연구대상 집단 분류: 분야별(인문, 사회), 상태(박사과정 및 수료, 박사학위 취득)
- 수도권/비수도권, 내국인/외국인(유학생), 비혼/기혼/기혼-유자녀 집단으로 추가 그룹화하여 분석에 반영
- 총 23명 연구참여자 대상, 12개 인터뷰 진행

연구 개요 :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참여자 그룹별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시각수 | 합 |
|----------|--------------|-----|----|
| 전문 및 직위 | 인문분야 학사과정 | 4 | 23 |
| | 인문분야 학사수료 | 3 | |
| | 인문분야 학사 | 3 | |
| | 사회분야 학사과정 | 3 | |
| | 사회분야 학사수료 | 4 | |
| | 사회분야 학사 | 6 | |
| 수도권/비수도권 | 수도권 연구자 | 15 | 8 |
| | 비수도권 연구자 | 8 | |
| 저년 대부 | 특정년 연구자 | 4 | 19 |
| | 특정년 연구자 | 19 | |
| 지역 | 내국인 연구자 | 20 | 3 |
| | 외국인(북한계) 연구자 | 3 | |

• 인터뷰 질문 (6개 영역)

| 주요조사영역 | 세부질문 |
|---------------------|---|
| 1) 기본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뷰 당시 생애주요사항 *출생년월일 *학업과정 (학사/석사/박사) 중 학사/석사/박사 중 어떤 과정을 이수했는지 *학업/직업상 인터뷰를 하는 이유 *인터뷰 대상이 누구인지 *인터뷰 대상이 누구인지 |
| 2) 이산된 경험과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산된 경험의 내용 *이산된 경험의 원인과 결과 *이산된 경험의 과정 *이산된 경험의 결과 *이산된 경험의 과정 *이산된 경험의 결과 |
| 3) 학술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 경험의 내용 *학술 경험의 과정 *학술 경험의 결과 *학술 경험의 과정 *학술 경험의 결과 |
| 4) 지식/노출과 직업 경력,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직업상 인터뷰를 하는 이유 *학업/직업상 인터뷰를 하는 이유 *학업/직업상 인터뷰를 하는 이유 *학업/직업상 인터뷰를 하는 이유 |
| 5) 사회적 참여 경험과 참여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참여 경험의 내용 *사회적 참여 경험의 과정 *사회적 참여 경험의 결과 *사회적 참여 경험의 과정 *사회적 참여 경험의 결과 |
| 6)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뷰를 통해 얻은 통찰 *인터뷰를 통해 얻은 통찰 |

여성연구자에 관한 연구현황 및 정책환경 : 선행연구

신진 연구자 실태 연구 - 대학원생 실태 연구 / 비정규직 연구자에 대한 실태 연구
- 이민규 외(2015), 김귀옥(2018), 배성인(2019) 등

여성 연구자 관련 조사 연구 - 이공계, 인문사회 분야에 각 1건의 연구
- 엄미경 외(2019), 김세은 외(2016)
- 생애주기별 여성 연구자가 학술 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드러냄

특정 분야 여성 연구자 경험 연구 - 특정 분야 내 특정한 위치에 있는(ex. 연마 대학원생) 여성 연구자 대상 연구, 대부분 질적 연구형식

→ '인문사회 분야 여성 대학원생'에 대한 현황 전반에 대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부족

여성연구자에 관한 연구현황 및 정책환경 : 기존 통계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연구개발활동조사>

한국연구재단(2021)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분석>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
<국내 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박사조사)>

한국여성과학기술인력개발원(2020)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 전공분야별 남성 및 여성 연구원 비율
- 여성 연구원 비율의 국제비교 수치
- 연령별/학문분야별/성별 전임교원 현황
- 연구책임자/연구수혜비/논문공개실적 성별현황
- 전임교원뿐 아니라 비전임교원 (겸임, 초빙, 시간강사) 통계까지 포함
- 성별 학생비율(석사/박사과정)
- 성별 학위 취득자수(석사/박사학위)
- 매년 전국 대학에서 신규로 배출되는 박사 전수조사
- 학업전념/직장병행 박사 비율
- 대학원 유형별 학/석/박사 미동 파악
- 이공계 분야 여성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실태조사
- 성별 고용조사, 성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 법률에 근거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제도 운영 조사결과 (입·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승진 목표제 운영 실태)

여성연구자에 관한 연구현황 및 정책환경 : 기존 통계조사



| 성별 | 구분 | 2019 이하 | 2019 | 2020 | 2021 이상 | 합계(%) |
|----|-------|---------|--------|--------|---------|--------|
| 남성 | 교원(%) | 4,292 | 13,623 | 21,923 | 12,978 | 52,816 |
| | 일반종사자 | 23.6% | 27.2% | 72.9% | 22.8% | 74.2% |
| 여성 | 교원(%) | 2,652 | 7,512 | 8,925 | 2,228 | 19,317 |
| | 일반종사자 | 32.6% | 22.7% | 22.1% | 74.6% | 22.7% |
| 합계 | 교원(%) | 6,944 | 21,135 | 30,848 | 15,206 | 74,133 |
| | 일반종사자 | 30% | 22.7% | 22.8% | 21.7% | 100% |

• 4년제 대학 연평균-성별 전임교원 현황
출처: 한국연구재단(2021)

여성연구자에 관한 연구현황 및 정책환경 : 기존 통계조사

• 응답자 특성별 입학에서 수료까지 학업 진념 여부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

| 구분 | 사망 수 | 학업 진념 | | 학업과직업병행 |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전체 | 10,000 | 4,750 | 48.2 | 5,250 | 52.0 |
| 성별 | 여성 | 4,410 | 47.0 | 4,990 | 51.7 |
| | 남성 | 2,270 | 19.7 | 2,260 | 27.6 |
| 학업 진념 여부 | 교육 | 267 | 10.0 | 21.0 | 7.9 |
| | 초·중·고 | 1,190 | 27.1 | 21.0 | 24.0 |
| | 사립대학 진학 및 진학률 | 600 | 21.6 | 22.0 | 24.4 |
| | 중앙 대학 진학률 | 1,120 | 21.6 | 19.0 | 21.0 |
| | 지방대학 진학률 | 1,260 | 10.0 | 22.0 | 22.7 |
| | 경제대입기업 | 210 | 10.0 | 11.0 | 22.0 |
| | 문화체육관광부 | 2,027 | 10.0 | 17.0 | 22.0 |
| | 문화체육관광부 | 100 | 0.0 | 1.0 | 22.0 |
| | 보건복지부 | 1,461 | 22.0 | 20.0 | 22.0 |
| | 사립대 | 200 | 7.0 | 19.0 | 21.1 |

• 응답자 특성별 현재 연봉 수준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

| 구분 | 사망 수 | 현재 연봉 | | | | | |
|-----------|---------------|-------------|----------------|----------------|----------------|-------------|------|
| | | 2,000만 원 미만 | 2,000~3,000만 원 | 3,000~4,000만 원 | 4,000~5,000만 원 | 5,000만 원 이상 | |
| 전체 | 7,297 | 13.4 | 12.2 | 15.2 | 11.6 | 47.6 | |
| 성별 | 여성 | 4,897 | 8.0 | 10.6 | 13.4 | 13.9 | 57.0 |
| | 남성 | 2,399 | 23.1 | 15.1 | 18.5 | 12.7 | 30.6 |
| 학업 진념 여부 | 교육 | 110 | 17.0 | 8.8 | 10.7 | 11.6 | 50.9 |
| | 초·중·고 | 207 | 29.1 | 20.5 | 20.2 | 8.3 | 23.0 |
| | 사립대학 진학 및 진학률 | 217 | 11.0 | 11.5 | 12.3 | 12.3 | 52.9 |
| | 중앙 대학 진학률 | 690 | 6.1 | 5.4 | 6.6 | 7.6 | 73.5 |
| | 지방대학 진학률 | 590 | 8.8 | 15.3 | 21.2 | 16.0 | 38.7 |
| | 경제대입기업 | 135 | 4.0 | 9.7 | 10.3 | 10.8 | 64.6 |
| | 문화체육관광부 | 1,740 | 6.1 | 10.1 | 13.2 | 10.6 | 62.1 |
| | 문화체육관광부 | 127 | 9.3 | 20.9 | 11.2 | 17.6 | 41.1 |
| | 보건복지부 | 526 | 4.8 | 7.8 | 12.9 | 10.8 | 65.0 |
| | 사립대 | 200 | 13.0 | 7.5 | 15.8 | 10.6 | 53.1 |
| | 교육 | 303 | 24.9 | 14.0 | 18.3 | 17.3 | 26.6 |
| | 초·중·고 | 429 | 40.8 | 20.5 | 13.5 | 8.5 | 15.6 |
| | 사립대학 진학 및 진학률 | 197 | 29.9 | 16.2 | 19.8 | 10.2 | 23.9 |
| 중앙 대학 진학률 | 221 | 23.1 | 9.1 | 10.0 | 13.1 | 45.7 | |
| 지방대학 진학률 | 228 | 11.0 | 18.7 | 25.2 | 18.7 | 26.4 | |
| 경제대입기업 | 17 | 11.8 | 0.0 | 47.1 | 17.6 | 23.5 | |
| 문화체육관광부 | 286 | 11.2 | 12.6 | 23.4 | 15.7 | 37.1 | |
| 문화체육관광부 | 47 | 25.5 | 17.0 | 21.3 | 10.6 | 25.5 | |
| 보건복지부 | 640 | 15.7 | 13.8 | 17.4 | 11.8 | 45.2 | |
| 사립대 | 117 | 26.0 | 14.5 | 20.5 | 8.5 | 21.4 | |

여성연구자에 관한 연구현황 및 정책환경 : 법률 및 정책

국내 여성연구자 관련 법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칭: 여성과학기술인법) (2003-)
- 주요 참고조항: 제4조(기본계획), 제6조(실태조사),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등
- 법률에 근거한 5년 주기 기본계획, 이공분야 여성연구자 정기 실태조사
- '여성과학기술인'의 범주: 연구자, 초·중등교육과정 학생, 학부생과 대학원생

국내 정책 / 제도 (이공분야)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4차 기본계획(2019-2023)
- 여성과학기술인 발달관 제도, 채용목표제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SET) 세부 지원사업
공학연구팀제/ 여성 멘토링 / 여성과학기술인 글로벌 학술활동 지원
R&D 경력복귀, 대체인력 활용 지원 / 과학기술 여성 인재 아카데미
W브릿지(이공계 여성 커리어 지원 플랫폼) 운영

국내 정책 / 제도 (인문분야)

- 국가 단위 정책, 제도, 지원센터 부재
- 개별 학회 단위의 소규모 지원 프로그램

여성연구자에 관한 연구현황 및 정책환경 : 법률 및 정책

여성연구자 관련 해외정책/제도

- 별도의 예산으로 여성연구자를 단독 지원하는 제도
- 단순 지원제도를 넘어 성/젠더 평등 고려를 장려하는 국가단위 기본지침과 계획 포함

유럽

- Horizon Europe & ERC(유럽연구이사회), GEP(Gender Equality Plan)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여성 교수 프로그램
- 스위스 국립과학재단, PRIMA(Promoting women in Academia) 지원사업

영국

- 아테나 스완 헌장 (Athena SWAN Charter)

일본

- 문부과학성, 다양성(iversity) 연구 환경 실현 이니셔티브
-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RPD(Restart Postdoctoral Fellowship) 사업

여성연구자에 관한 연구현황 및 정책환경 : 소결

통계조사

- 인문사회분야 여성 연구자에 특화된 실태조사 필요
- 인적 자원을 넘어, 학문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복지 및 안전망이라는 관점 필요

법률 및 정책

- 해외제도 및 정책은 과학기술분야 여성 → 인문사회분야 여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
- 국내 인문사회분야 여성 신진연구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부재
- 인문사회 분야 여성 연구자의 생애주기별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필요

연구참여자들의 특징과 배경

• 연구참여자 그룹별 분류

| 대분류 | 소분류 | 사람수 | 합 |
|----------|--------------|-----|----|
| 전임 및 주임 | 임원분야, 박사과정 | 4 | 23 |
| | 임원분야, 박사후보 | 3 | |
| | 임원분야, 박사 | 3 | |
| | 사회분야, 박사과정 | 3 | |
| | 사회분야, 박사후보 | 4 | |
| | 사회분야, 박사 | 6 | |
| 수도권/비수도권 | 수도권 연구자 | 18 | 8 |
| | 비수도권 연구자 | 8 | |
| 저년 대부 | 특차년 연구자 | 4 | 19 |
| | 특차년 연구자 | 19 | |
| 국립 | 내국인 연구자 | 20 | 3 |
| | 외국인(특학법) 연구자 | 3 | |

평균 연령

- 1978년생~1999년생
- 20대 3명, 30대 15명, 40대 5명

비혼/기혼

- 기혼자 8명, 미/비혼자 14명

대학 소재

- 국공립대 11명, 사립대 12명

학위취득 평균 기간

- 9년 8개월

한 학기 등록금

- 수도권 평균 477만 원
- 비수도권 평균 241만 원

학비/생활비 마련 경로

- 다중경로
- 박사과정 조교/가족지원
- 학위취득 과정/강의/연구비 지원

연구자로서 자존감 척도

- 평균 6점/10점

가족과 주변 지지도

- 평균 7점/10점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1.1 대학원 진학과 경제활동

대학원 진학 계기

- 학문적 성취감, 경제적 조건(장학금/가족 지원), 취업 전략의 3가지
- 원가족의 지원이 없을 경우, 국내 박사과정 진학은 연구자로서의 삶과 경제수단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일종의 '각오'가 필요한 작업

“박사 지원을 한 상태에서 (BK 사업단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BK가 있다는 게 생활비가 있으니까 내가 더 이렇게 지속을 할 수 있겠구나. (D6)”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1.1 대학원 진학과 경제활동

경제활동과 재생산

- 박사과정 중 다중 경로로 경제활동 수행(학내 조교+@)

- BK, SSK 등 지원사업 연구보조원
- 연차별 실적달성 업무 압박
- 임금 대비 과도한 노동과 연구 시간 희생



- 불안정한 복수의 수입원과 학교 생활 병행
- 계약직 연구원, 학습지 강사, 번역, 대필, 자문
- 아르바이트, 사교류(파티)
- 장학금 받더라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제생활 병가피

"진짜 3년 내내 BK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 요하게 공부하는 수로 후에(하게 됐어요). (출입부) 완전히 소진해서 1년 동안에는 아무 쓸데도 쓰지 못했어요. (D6)"

"달랑 일을 구하려고해도 제가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4대 보물에 가입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요전에 4시간씩 할바하는 거, 저녁에 애들 영어과외하는 거. (B7)"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1.2 대학원 생활과 학교문화

연구환경의 열악함

- 입학 후 불안정한 학비와 생활비 문제
- 일과 학업의 이중고 발생, 휴학 및 학업중단 고민
- 대학 내 인문사회분야 학과 폐과/통폐합, 정원 축소
- 개설과목 부족, 타 학교/타 학제 수업을 수강

"논문출게제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 또 논문을 쓸 시간이 없어요. 논문을 쓸 내로 계속 일을 해요. 학은 졸업이에요. 어느 순간 되면 공부할 위해서 공부를 포기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A7)"

- 열악한 연구환경은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자로 길러지고 정체화하는 과정에서부터 큰 방해요인으로 작동

"박사과정생이 2명인데 오랫동안 저 혼자였어요. 학교가 워낙 작으니까 장모드 할만 들어와요. 저는 서울대에 가서 처음 볼모키움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학회도 뭐가 열리는지 알아야지 나가는데 그런 게 전부였을 때 되게 고립된 환경에서 혼자 공부할 수 밖에 없는 거죠. (A2)"

"박사과정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학부생인지 연구자인지 이런 정체성이 없었어요. 내가 학자로서의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이런 게 되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학생처럼 다녔어요. 연구자라는 자각 없이. (A2)"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1.2 대학원 생활과 학교문화

연구환경의 열악함

- 연구환경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박사수로 후, 학위취득 이전'
- 경제적·네트워크적인 '사각지대(A1)', 정서적으로도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
- 학위를 취득하기 전까지 경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 노동을 하면서 학위취득과정이 늦춰지는 경험을 하기도 함

"수료한 상태에서 학위를 받기 전까지가 자존감이 가장 낮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연구 활동에서도 그렇고 자기 논문을 마주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도교수가 굉장히 위계적이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그때라고 생각거든요. 정서적으로든 물질적인 것이든 학술 연구에 기반해서든 네트워크에서든, 가장 그 기간이 가장 약할 수밖에 없고. (D2)"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1.2 대학원 생활과 학교문화

각자도생의 연구문화

- 학교 내에서 교류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나가는 연구문화의 부재
 - 세미나나 동료 간 학술활동 프로그램의 제도적 미비
 - 소속분과 규모가 작거나, 연계/협동과정, 유학생일 경우 어려움 가중
- 대학 안에서 '논문을 쓰는 방법'이나 연구자가 맺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학습 어려움
 - 대부분의 과정/수료생 연구자들이 자신을 연구자로 정체화하기 어려워함

"단독 저자로 논문을 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논문을 쓰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할게 내면 저자분은 혼자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상황에서 졸업 때가 많았거든요. (A1)"

"본인만 의도중에서 힘든 것 같아요. 이루는 대학원이 어느 정도 학습력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고,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점. (A7)"

"대학이 적임을 거쳐 연구자를 육성해야 되는데 인문학적인 토대를 만들고 양질의 사회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연구자를 길러내는 데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커라' 이런 느낌이라서... (A2)"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1.2 대학원 생활과 학교문화

여성 연구자로서 경험하는 대학원 생활

-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생활 중 '여성연구자'로서 명시적/암시적인 다양한 종류의 차별에 노출

(1) 성폭력 및 성희롱

- 여성연구자들은 여전히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음
- 공론화시 학내 입지·인적 네트워크 타격 감소 → 사적인 자리를 통한 '평판 투쟁'에 그침

"저보다 먼저 학교 생활은 했지만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교수들에게 달한 여러 가지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학계에서는 이 친구도 '정말 투쟁'을 하는 거지. 이걸 정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승산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파멸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달한 일이 아니어도 이 에피소드를 활동판에서 들었으면 정말 뒤집어엎었을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냥 안고 (가야 하고) - 저 사람이 어떻게 한 거 나 다 아는데, 저 사람이 포질한 것도 다 알고 저 사람이 제자 아이디어 가져가는 거 다 알고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나서서 하지 못할 때 드는, 굉장히 원가 자아가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B2)"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1.2 대학원 생활과 학교문화

(2) 남성 중심의 연구문화

- 남성 / 연장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교/연구소 문화
- 연성화된 형태의 차별, 네트워크에서의 여성연구자의 배제 인식
- 문제의 원인은 연구자의 '여성됨'으로 환원, 여성연구자 스스로도 자신의 '여성됨'에 불안정함을 느끼게 됨
- 자신의 여성됨을 표출하려 하지 않거나, 몸가짐과 옷차림 등 스스로를 통제하는 습관으로 이어짐

"학회를 갔을 때 약간 (남성 교수나 연구자들이) 여성 연구자들과 대화를 할 안 쓰는 거? 그냥 '너랑은 할 말이 없다', 이런 느낌. 정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저 남자 연구자하고만 자주 대화를 하시는 거죠. (A4)"

"제가 유학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유학 가서 외국 남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라'고 - 다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여성을 정말 진지하게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로, 같은 동료로 대하는 게 맞나 하는 거죠. (B7)"

"박사를 받은 선생님들과 여성 박사과정이나 연구초고인 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이 아무리 의식을 열심히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보이지 않는 위계가 생기고.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연구자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좀 부끄럽고, "그냥 연구자 지망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B5)"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2. 학술활동과 네트워크

- 연구분야와 학계 분위기에 따라 각 개인의 학술 네트워크 환경은 상이
- 대부분의 참여자가 부족한 연구환경 속 학술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
-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직접 학술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학교 밖 단체에 참여하는 사례

"000(학교 밖 연구공간)에서 세미나를 여종마다 열잖아요. 무작정 등록해서 여종 동안 일하면서 별함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도움이 엄청 크게 됐던 걸말이었어요. 왜냐면 학교가 아니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없던 거잖아요. (B1)"

"이게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온이 좋아서 열린다면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갈려만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모여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공부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A2)"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3. 취업 준비와 일 경험(박사학위자)

구직 과정과 구직 경로

- 학위 취득 후 강의를 병행하면서, 특정 루트를 이용해 채용 정보를 구하며 일자리 지원
- 주된 일자리 취득 경로는 '주변 인맥', 그 외의 수단으로 '구인구직 사이트'

진로 계획: 학위취득 이후의 불안정성

- 신진연구자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재임용/재계약 절차를 반복하는 계약직
- 대부분 강의를 병행, 강의 수 축소가 어려운 한편 개인 연구나 실적에 할애할 시간은 매우 적어짐

"학기 중에는 강의 때문에 정말 허덕허덕하고, 방학 때는 또 연구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D3)"

"연구도 계속 해야되고, 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맨날 제안서를 쓰고 있고.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불안감. 그리고 나이도 적은 편이 아니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여자는 빨리 40대 초까지는 갈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미 나이가 그렇고, 사실 미국 박사도 아니고 저도, 그리고 여성 박사로서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요... (D5)"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3. 취업 준비와 일 경험(박사학위자)

일 경험과 노동환경

(1) 강의

- 학기당 많게는 5-6개까지 담당, 주로 '인맥'으로 시작
- 신진연구자들의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생계수단
- 현행 강사법은 건강의료보험 제외한 3개 보험만 보장
- 강의는 '대학 평가'와 맞물려 돌아가는 '강의 시장'에 맞추어 구성
- 자신이 맡게 될 강의의 성격을 결정할 수 없거나 폐강 위험도 항상 존재

(2) 연구교수

- 재임용 시스템을 통한 한시적 계약 형태
- 취직 이후에도 강의와 행정, 연구 동시 수행, 과도한 업무와 번아웃
- 재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많은 실적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 부담감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이번 학기에는 이거(강의) 살아야 될 텐데, 이거 하나 살아가면 30% 줄어드는 거니까' - '이번 년에도 학술연구교수 떨어졌네. 이번 학기에는 몇 개 개설될까? 학교에서 나한테 3학점 줄까, 6학점 줄까, 9학점 줄까?' 매년 이러한 게 좀 피 달리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A3)"

"1년마다 재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재임용의 기준이, 일반(미등록) 학술지예요. 일반 학술지에 신진연구자가 논문 올린다는 거는 '출판'이거든요. 그리고 논문을 1년에 3개 써야 돼요. 발표를 두 번 해야 되고, 그 외 기타 연구소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연구소의 업무는 제 연구는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완전히 연구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와중에 내 연구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이중 상황인 거죠. (D6)"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3. 취업 준비와 일 경험(박사학위자)

일 경험과 노동환경

(3) 프리랜서

- 대부분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이 부수적으로 동반하는 활동
- 연구기관의 연구비 지원사업 / 기간제 용역 프로젝트
- 특수고용자 프리랜서로서 제도적으로 겪는 어려움(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4) 기타

- 사교육, 상근, 지역 활동
- 간헐적 자문, 청탁 원고, 연구분야 관련 한시적 교육이나 특강 일자리

"(연구자로서) 사회 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되기 어렵다는 거, 대충을 받을 때나 증빙을 해야 할 때 임종의 프리랜서 노동자로서 걱계 되는 걸 저도 똑같이 겪고 있고. 확실히 학계에서의 지식노동이라는 거는 정규직이 되기 전에는 다 이윤에 상관없이 '프리랜서 노동자'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일이 너무 많이 몰리고, 어떨 때는 너무 일이 없고, 그게 박사를 졸업하고도 똑같더라고요. 한 달, 한 학기 일이 안 보여요. (D1)"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학술 활동과 노동 경험: 대학원 진학에서 취업까지

소결

"문제는 인문사회계 연구자들 노동 방식이 대부분 자기가 노동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힘든데, 그 노동을 '구걸'하는 방식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최소한의 생계를 하기 위한 지원금을 위해서 연구 계획서는 또 이만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 연구가 탁월하고 잘했고 제발 잘할 자신 있으니까 제발 생계비를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방식이어야 된단 말인가. (A3)"

"연구자들 어떤 심크렘크라든지 사회적 틀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일용직 지식 노동자처럼 쓰고 버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통념들이 있고, 그에 따라 연구자들이 한 걸 쓰고 버려지는 것 같아요. '니가 연구 따윈 시켜줄게' 이러는, 연구라든지 인문학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문학의 가치를 지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실적, 연구해야 되고 그거 아니면 난 쓸모없는 인간되고요. (A2)"

"계속해서 '일용'과 '회의'를, '내가 하는 게 가치가 있고, 계속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라는 일용과, '도대체 내가 하는 게 뭐가 가치가 있지, 거리에서 죽는 게 아닐까'라는 그 회의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 걸단(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인 것 같아요. (A7)"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연구자의 삶

1. 출산과 육아

- 여성 연구자들이 어떻게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가,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는가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여성연구자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대체로 부정적인 변화로 인식
- 결혼/출산은 사회에서 자신을 '연구자'가 아닌 '여성'으로 규정하는 과정, 연구자로서의 삶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환영받지 못하는 임신과 출산

- 주변의 반응을 통해 임신 상태를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
- 기존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대학원 문화: 대학, 학계, 연구자들의 삶에서 임신과 출산 비가시화
- 여성 대학원생의 디플트 상태는 '미혼, 무자녀', '임신과 출산'은 류학 사유 이상으로 논의되지 못함

"제 주변에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비혼인 여성 박사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이 여성 연구자에게는 그리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D3)"

"'어떡하지'를 조금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축하해요, 아기 귀엽겠다.'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인사죠. 건네서 들은 얘기는, '저 언니 어떡하냐. 좀 특별한 걸 알았는데 그 것만큼 학업을 할 수 없을 텐데 어떡하냐'. 제 포지션을 자각하게 되는 말이기도 한 거죠. (B6)"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연구자의 삶

1. 출산과 육아

젠더화된 육아 돌봄과 가족 지원

- 주변의 지원과 자원이 많을수록 연구자 학업 재개시기 빠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움 겪음
- 배우자보다 여성연구자가 육아 돌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경우
- 직장인 여성과 학생/연구자 여성에 대해 서로 다른 사회적 인식이 여성연구자의 돌봄을 더욱 가용화

경력 단절과 학업 재개

- 무자녀 연구자들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중 압박감
- 육아가 '핑계'나 '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느낌

"모든 역할을 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자로서 또는 엄마로서도 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연구 방법도 유행이라는 게(있고), 연구 동향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는데, 제가 (육아로) 손을 놓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걸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후배들이 폭죽 논문 쓰고서 올라오는데 나만 자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A4)"

"정규직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대학원생이나 비정규 연구원이라든지 감사들에게는 그런 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자체가 보장이 거 의할 안 되죠.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나마 최근 몇 년 전에 생긴 거는 논문 작성 유예, 연구 프로젝트 결과 유예, 연구재단 프로젝트에서 실적 내는 것을 2년 동안 스타트(stop). 그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없고. (D1)"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연구자의 삶

2. 버티거나 완벽하거나

- 여성 신진연구자들은 동료들이 떠나는 곳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학술장에 머물며, 어떠한 주체성을 요구받는가?

사라지는 여성 연구자들

- 학위과정의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 감소를 체감
- '미래 없음'의 감각: 여성연구자의 '롤모델'의 소멸
- 여성 동료의 부재와 사라짐에 맞서, 여성 연구자들은 학술계를 떠나거나 생존을 위해 '오래 버티는' 전략 취함
- 생존한 소수 연구자들은 '완벽한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 학계에 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자원보다 더 노력하거나 뛰어난 방식으로 드러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인식

"통계적으로도 인문사회계 계열 석사 여성들이 60%예요. 근데 박사로 가면 40%가 되고, 박사 이후 가면 더 적어지죠. 올라갈수록 여성들이 조금 조금씩 사라지는 곳이에요.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여성연구자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안정적인 중견 연구자로서 여성들은 진짜 많지 않죠. (D1)"

"일용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여자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일 테고, 그건 대학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자한테 자원이 한정적으로 배부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A2)"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연구자의 삶

2. 버티거나 완벽하거나

- 그러나 참여자들은 기존의 롤 모델들('남성 교수', '여성 교수') 모두에 자신이 부합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
-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여성 선배나 교수들의 모습을 거부
- 다른 한편에서는 남성 교수들의 특권에 대한 냉소와 간파를 통해 '좋은 연구자'의 주체성에 의한 계기
- 이는 학술 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나 여성 연구자 스스로 새로운 롤 모델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연결

"여기서 제자리감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제 너 교수 되는 거야?" 하면서는 진짜 여기까지 막 올라왔어요.

(남성 선배님들께) "지방대 여성 연구자가 어디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선생님이랑 저랑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자체가 다르다" (B5)*

"처음에는 롤 모델이 지도 교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도 잘하고 학교에서 자리도 잡았고 아이도 잘 기르고 집안일도 잘해.

요즘에는 '임용이 되지 않았는데 과몰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데 롤 모델은 바뀌었어요. (C3)*

"지금 도달한 잠정적인 결론은 '나의 롤 모델을 찾을 수는 없었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시기와 나의 상황이나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같이 있는 다른 여성 연구자들 네트워킹들 속에서 그냥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구나. (D1)*"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연구자의 삶

3. 인맥과 네트워크

- 여성 신진연구자들에게 인맥은 어떻게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는 젠더와 지역 등 요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가?
- 인맥은 인문사회 분야 신진연구자들이 경제활동이나 연구활동 경험을 입수하는 주요 경로
- 연구자의 경제적 재생산 및 평판과 관련된 자원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
- 연구참여자들은 인맥이 남성 연구자에게 사회적 관계와 기회를 더 부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인식
- (기혼-유자녀) 남성에게 치중된 기회 분배 구조
- 이는 실제 학술활동과 관련된 노동 수행 과정에서 성별 분업의 형태로 나타남
- 스스로 인맥을 구성할 기회, 인맥에 의해 기회를 배분받는 구조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감각

"너무 학계가 좁아서 서브다 아실 테니까 내가 이 길(인맥으로 들어오는 일)을 거절하면 이 사람이랑 연이 끊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오는 건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계 때문이 아니라 (B7)*"

"관건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남성 연구자들이 같이 모임을 하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여성들) 불만하게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승리는 자리는 일부러 안 부르기 드리고-- (D5)*"

"아무래도 높게까지 승자리에 있지 못할 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면 할말 할수없을 대부분 남성분들이 남아 계세요. 어느 순간 저 혼자 여자가고, 근데 제가 먼저 떠나게 되면 뭔가 내가 더 연구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뚝치고 있는 것 같고. (B1)*"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연구자의 삶

3. 인맥과 네트워크

- 평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인맥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갈수록 학업과 노동수행 과정의 전 단계에 강력하게 결합
- 대학뿐 아니라 대학 외부에 있는 관련 일자리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
- 인맥은 '학연/지연주의'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들처럼 단선적으로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한국 학술사회의 한 구성요소, 학술 장에서 연구자를 재생산시키는 하나의 일반화된 경로
- 여성 신진연구자에게 '출구'가 될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방식의 인맥과 네트워크 개발이 필요

"이 (지역의) 시장 바닥이 좁다 보니까 뭘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외부) 조사원 일 같은 경우도 업무가 제가 많으면 박사님들끼리는 대화를 하세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조사원 어때? OO학과 누구 어때'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는 제가 취직을 할 때도 분명히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B7)"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연구자의 삶

4 불안정한 지식 노동

- 신진연구자들은 어떻게 불안정한 지식 노동자가 되는가?
- 여성이라는 특성은 학계 안팎의 불안정한 지식 노동 재생산 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가?
- 사전 설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의 학술활동을 '노동'으로 인식하는지 질문
- '노동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
- 학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경험 부재 / 자신이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는 '학생'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
- '노동이다'라고 답변한 경우
- 학술활동에 대한 주변의 가치 평가절하·착취·노동 관념 부재를 비교적 명확히 인식

"제가 돈을 받으면 이게 약간 노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거 없이 내 논문을 쓰고, 학술지 논문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노동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B2)"

"연구 자체는 확실히 노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사회 발전이나 무언가를 확신해 나가는 일을 하더라도, 이공계에서 하면 그건 노동이 되는데, 인문사회 분야는 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관심 있어서 하는 거'로 취급되는가 생각을 했어요. (예술가들이 받는 취급처럼) "네 그림 그리는데 왜 돈을 줘?" 이런... (A3)"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연구자의 삶

4 불안정한 지식 노동

학술활동은 왜 노동이 되지 못하는가?

(1) 교육/훈련 기간으로써 학위과정

- '수련노동': 학위과정에서 수반되는 노동은 '배우는 것', '훈련'을 위한 것으로 간주
- '배우는 자'의 위치는 스스로를 '미완된 연구자'의 상태에 놓으며, 일을 하더라도 대가나 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스스로 '연구자'라고 인식하거나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상황과도 연결

(2) 개인이 교육비용을 마련하는 구조

- 학위과정 중 필요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온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상황
- 자신의 학술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술 과정을 통해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학계를 유지시키고 재생산하는 노동에 무엇이 많이 섞여 있다면, '수련 노동'이요. 정규직이 되기 전 저렇하게 부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너의 실력도 되잖아" "너의 경력도 되잖아, 강의 경력도 되잖아, 연구 실력도 되잖아" (D1)"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가장 심한 곳이 대학교 학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언젠가는 정규직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심박같은 희망인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노동의 성과는 대학과 일부 정규직들이 가져가는 거죠. (D1)"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연구자의 삶

4 불안정한 지식 노동

학술활동은 왜 노동이 되지 못하는가?

(3) 무분/저임금과 착취 노동

- 학계를 끌리는 많은 '그림자 노동'에 신진연구자들이 투여
- 이는 많은 경우 젠더화된 분업으로 드러남
- '지식 노동'이라고 정의할 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함
- 무분노동의 특성은 학위취득 이후 참여를 요구받는 학회에도 해당
- 전임교수가 부재한 자리에 신진연구자들이 학회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저희 학회는 실제 전임 교수들 많이 활동들 안 해요. 한국 내 학회에서 활동해봤자 자기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이 많지 않거든요. 그 시간 아껴서 논문 쓰고 해외저널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란 말이죠. 그래도 학회는 들어가야 돼요, 입은 해야 돼요. 절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없어요. 그 자리를 지금 다 누가 채우고 있나? 비정규직 강사 내지는 정규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채우고 있단 말이죠. (D3)"

"(들 다 간사르 들어왔는데) '얼굴 마담' 같은 간사르 그 사람(남성 동기)이 하고, 그 밑에 저를 위해서 모든 일을 제가 다 하는데, 어디 나가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예약하고 이런 트시락세팅은 다 제가 하고. (B7)"

"대부분 학술대회 하면, 발표하거나 잘난 그런 '에이스'들은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여자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거 하나 연구자권 담당하고 그다음에 다과 세팅 중 이런 걸 많이 하시죠, 염수용 받고. (A3)"

키워드로 다시 읽는 여성연구자의 삶

4 불안정한 지식 노동

- 여성 신진연구자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불안정한 지식 노동자라 할 수 있음
- 1) 자신의 학술 활동과 지식 재생산을 '노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정성
→ 자신의 노동의 특성을 인지할 수 없는 학술 장의 구조와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
- 2) '여성'으로서 대학 안팎에서 고용 안정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위치성
→ 노동시장 일반에서의 '여성'의 위치성과 조응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보고서를 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나의 지식을 요하는 걸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노동자(아닐까). '지식 노동자'라는 말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D5)"

"전일 교수님들과 저희가 다르지 않잖아요. (강의노동 시) 수업에 임하는 자세랄지, 태도랄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정말 너무 같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학생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등을 모든 것들이 너무 그냥 '값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식 노동자 가운데서도 굉장히 믿이 단단하지 못한, 불안한 지식 노동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식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잖아요. (D3)"

결론

- 인문사회 분야 여성연구자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자료의 양적, 질적 부족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자료 필요

1

- 인문사회 분야 여성연구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총체적 부재

-특히 박사수료자와 경력단절 여성 연구자는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

2

- 여성 신진연구자는 연구자 생애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 형태의 불안정성에 노출

-살의 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이 여성 연구자의 다음 단계로의 이행과 정착을 지연

3

4

- 여성 신진연구자들은 '여성'으로서 겪는 학술 장의 모든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과 대응을 요구받아 오

-제도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스스로 분투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

→ 인문사회 분야 여성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지식 생산과 학술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성 신진연구자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

정책적 제언

- 1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필요
- 2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정책 추진 주체 마련
- 3 인문사회 분야 여성 신진연구자들이 여성으로서 학계에서 부딪히는 난관을 해결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인적 인프라 마련
- 4 학교 지역 학회 연구소 단위를 넘어 상호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방안 마련
- 5 연구과제 공모 시 심사 기준에서 연구원 성비 기준 마련

감사합니다.

<‘연구하는 삶’을 위한 여성 신진연구자들의 고민과 분투> 토론문

- 제5회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023.2.27.월.16시 -

이승원(연구자의 집 운영위원)

20대에서 40대 사이 국내 학위과정에 있는 여성 신진연구자에 대해서, 50대 중반의 남성 해외 박사학위 연구자가 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아니 매우 긴장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양자 사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중 하나는 아마도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 연구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솔직히, 박철현 선생님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에 미안함 맘과 함께 조금이라도 힘 보태고자 토론을 자청했지만, 발표문을 받아보고는 한동안 파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거 같았고, 그 이야기를 읽게 되면 느껴질 어떤 피하고 싶은 무거움이 벌써 감지되었기 때문이었던 거 같습니다.

발표자료를 읽고 나자 그 무거움은 역시나 찾아왔고, 토론문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남성 연구자, 그것도 운 좋은 남성 연구자의 모습을 발표자료에 담긴 내용에 투사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투사할 내용은 이 토론문에 적기보다는 현장에서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나누겠습니다.

분명 현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인문 사회과학 연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식을 생산하고 보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성과 양심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연구자에게 일종의 객관화된 인정 또한 피하기 힘든 관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삶을 선택한 모두가 자기만족을 느끼며 살 수는 없고, 어느 날 이러저런 이유로 인생의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쩌면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든 너무 외롭거나 너무 억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과 억울함의 문제를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대적인 박탈감 차원에서 다루어도 안 될 것입니다. 여성 신진연구자라는 주체 위치에 부과된 이 강요된 경험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객관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력 관계의 부당한 효과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몇가지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이 왜 육아와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육아와 가사노동을 특정한 정체성에게 강제로, 혹은 윤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이 사회의 바람직한 재생산을 위해 유일한 방법인가?” “타당하지도 유일하지도 않다면, 이것을 당연히 여기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슨 이유로 재생산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학위 과정은 물론, 학위 취득 후에도 자주 발생하는 일부 연구자 집단에 대한 편견, 차별, 범죄,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과 공론화에 대한 권위적 억압이 특히 ‘여성’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부당한 것들은 ‘남성’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는가, 아니면 특정 엘리트 권력 집단의 재생산에 기여하는가? 만일 후자라면 (대학 내 일부 교수 집단들처럼) 모든 성별의 ‘신진연구자들’ 이 엘리트 권력 집단에 의해 겪게 되는 (불공정한 과잉 노동, 낮은 수준의 교수 역량과 연구 기반,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 부당한 경험은 무엇이며, 이 신진연구자들을 파편적이고 고립된 개인으로 남아있게 하는 힘과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당한 것들에 대해 ‘남성’ 담론이 침묵하거나 왜곡하려 한다면, 이 남성 담론과 판타지에 맞서고 탈구축하여 대학과 연구자 공동체 내 민주주의가 급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끝으로, 현재 한국 대학의 미래는 벼랑 끝으로 밀려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기성 대학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가 겪는 부당함과 폭력(의 행사)에 대해 침묵하거나, 공포 속에 순응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욕망의 구조와 판타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판타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찌보면 현학적인 이 질문들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오히려 현재의 여성 신진 연구자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당장 다루지 못하게 유보하고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

는 타자에 의한 질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는 여성 신진 연구자들의 삶에 대한 질문이 결코 이들만의 문제, 인권의 사각지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야만적인 권력관계, 오멜라스를 떠나지 않는 자들의 주저함을 보여주는, 이 대학과 사회의 한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